

해외 주요 도서관 컨소시엄의 운영현황 비교·분석

-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와의 면담을 중심으로 -

Library Consortia Characteristics Comparative Analysis around the World

김 재 훈 (Jayhoon Kim)*

이 응 봉 (Eung-Bong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 해외 주요 도서관 컨소시엄의 현황
비교·분석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컨소시엄별 특성 |
| 1.2 도서관 컨소시엄의 개념과 현황 | 3.2 컨소시엄별 라이선싱 조건협상 |
| 1.3 선행 연구 | 3.3 컨소시엄별 성과측정 |
| 2. 연구 방법 | 3.4 컨소시엄별 현안사항 |
| 2.1 연구 설계 | 3.5 전문가별 컨소시엄 가치 인식 |
| 2.2 면담 대상자 | 4. 결론 및 제언 |
| 2.3 자료 수집 | |
| 2.4 자료 분석 | |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주요 도서관 컨소시엄의 운영현황과 특성에 대하여 선진국의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를 직접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들은 구성 목적, 조직, 자원, 기능 등에 있어서 각각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컨소시엄별 전문가들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도서관 컨소시엄의 가치를 정보가격 협상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정보가격 인상의 대안으로 OA(Open Access)를 지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characteristics of library consortia around the world. This study was done by interviewing 5 library consortia experts from 4 developed countries. Findings are each consortium has unique characteristics in purposes, organizations, funding sources, functions and also perception of consortium by experts were different. Experts recognized the value of library consortia as an economy of scale (mainly buying power) and pointed out open access as one of the alternatives for electronic information price increase. This study could improve understanding current status of library consortia around the world.

키워드: 도서관 컨소시엄, 전자정보, 전자저널, 조건협상, 오픈 액세스

Library Consortia, Electronic Information, E-Journal, Negotiation of Conditions, Open Access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첨단정보융합본부 과학기술정보센터 선임연구원(jay.kim@kisti.re.kr) (제1저자)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eblee@c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6년 7월 25일 최초심사일자: 2016년 7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6년 8월 1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3): 491-511, 2016. [http://dx.doi.org/10.4275/KSLIS.2016.50.3.49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자저널 도입 초기, 빅딜 중심의 전자저널 라이선싱 모델은 기존 인쇄저널 구독 비용에 약간의 전자저널 액세스 비용을 추가 부담함으로써 해당 출판사의 전자저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도서관들의 환영을 받아왔다. 그러나 학술 커뮤니케이션 변화에 따른 전자저널 증가, 출판사들의 빅딜 중심 전자저널 공급, 도서관 예산의 감소로 인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도서관들은 전자저널 구독을 유지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국내에서는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도서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전자정보 컨소시엄은 선진국과 비슷한 시점인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도 전자저널 구독료의 상승과 도서관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세계적 상황과 다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전자정보 컨소시엄 참가기관들은 출판사와의 전자저널 구독 협상력 강화, 구독 모델 다양화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전자정보 컨소시엄 구성 이후 국내에서도 전자정보 컨소시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요구분석, 문제점 고찰, 미래 모형 제안 등 국내의 상황을 분석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및 연구 도서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운영 현황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특히, 실제 컨소시엄을 운영하며 이해관계자들의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을 통해 도서관 컨소시엄 현황, 현안 사항, 전문가로서 도서관 컨소시엄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컨소시엄 전문가의 운영 경험과 컨소시엄에 대한 견해를 통해 직접 확인한 국내의 최초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되며, 주요 선진국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운영현황과 특성을 비교·분석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2 도서관 컨소시엄의 개념과 현황

도서관 컨소시엄은 한국도서관협회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는 “주로 자료의 공동관리 및 이용을 목적으로 협정에 의해 구성된 도서관 집단”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ABC CLIO사의 Dictionar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도 “주로 정보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공식적인 협정에 의해 구성된 독립적인 도서관들과/또는 도서관 시스템들의 연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도서관 컨소시엄의 역사를 잘 정리한 자료로 Baathuli Nfila와 Darko-Ampem(200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Melvil Dewey가 1886년 Library Journal에서 “도서관 협력”을 언급한 것을 도서관 컨소시엄의 시초로 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도서관 컨소시엄은 지리적 구성(주 단위, 여러 주 간의 통합, 국제적 협력), 추구하는 가치, 목적, 회원기관의 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며 컨소시엄 참여자들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유리한 모델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자정보 컨소시엄은 1998년 덴마

크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 국가들과 Academic Press와의 전자저널 공동구매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단순 집단 구매(buying clubs)에서 점차 고도화된 정보 공유 활동을 추구하는 기관간의 전략적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1996년 국제 도서관 컨소시엄 연합(ICOLC, International Coalition of Library Consortia)이 발족되면서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간에도 정보 공유와 협력 활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ICOLC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도서관 컨소시엄은 180여개¹⁾에 달한다(〈표 1〉 참조). 북미 대륙

에 101개의 도서관 컨소시엄이 분포하여 가장 많고, 유럽 44개, 아시아 16개, 오세아니아 6개, 남미 4개, 아프리카 4개의 컨소시엄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국제적 컨소시엄도 2개가 있다.

1990년대 전자정보 보급 이후에는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기능이 전자정보 라이선싱으로 집중되고 있다(〈표 2〉 참조). 전자저널 선정, 관리,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서관 컨소시엄 단위에서 수행되는 전자저널 연구, 표준화, 협상활동 등이 개별 도서관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주

〈표 1〉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분포

대륙	국가	대륙	국가	
Africa (4)	Congo (1)	Europe (44)	Austria (1)	
	Ethiopia (1)		Belgium (1)	
	Kenya (1)		Denmark (1)	
	South Africa (1)		Estonia (1)	
Asia (16)	China (1)		Finland (1)	
	Hong Kong (1)		France (2)	
	India (5)		Germany (7)	
	Israel (1)		Greece (1)	
	Japan (1)		Hungary (1)	
	Korea (1)		Iceland (1)	
	Lebanon (1)		Ireland (1)	
	Malaysia (2)		Italy (3)	
	Nepal (1)		Lithuania (1)	
	Pakistan (1)		Luxembourg (1)	
	Taiwan (1)		Netherlands (2)	
	North America (101)		Canada (16)	Norway (2)
			El Salvador (1)	Portugal (1)
United States (84)			Russian Fed. (1)	
South America (4)	Brazil (1)		Slovenia (2)	
	Chile (2)		Spain (2)	
	Uruguay (1)		Sweden (2)	
Oceania (6)	Australia (5)		Switzerland (1)	
	New Zealand (1)		Turkey (2)	
			United Kingdom (6)	
			다국적 (2)	
계 (177)				

1) ICOLC 웹사이트(<http://www.icolc.net>), 2016년 4월 기준

게 되었으며 중요한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도서관 컨소시엄이라는 명칭이 주로 전자정보 공동 라이선싱 기능으로 한정되어 지칭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전자정보 국가 컨소시엄 KESL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ACE 해외전자정보 컨소시엄,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KMLA 의학DB 컨소시엄 등은 모두 전자정보 공동 라이선싱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 컨소시엄들이다.

<표 2>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의 주요 기능

도서관 컨소시엄 기능	기능별 컨소시엄 수*
전자정보 라이선싱	151
교육, 훈련	105
장서 공유	88
상호대차 / 원문복사	81
종합목록 / 온라인목록	67
보존	45
전자정보 로딩 / 프레젠테이션	44
목록/편목 서비스	32
저장시설	24

* 도서관 컨소시엄은 한 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능별 컨소시엄 수는 중복이 있음

1.3 선행 연구

해외 연구자들의 도서관 컨소시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와 관련하여 전자정보 라이선싱 부분에 국한하여 도서관 컨소시엄 간의 비교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derson(2010)은 미국 Lyrasis 컨소시엄 출범 후 미국 PALINET, SOLINET, NELINET 컨소시엄 책임자를 면담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Lyrasis 컨소시엄으로 통합한 배경, 기대효과, 미래 비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하였다.

미국 VIVA 컨소시엄 책임자 Perry와 Self(2012)는 균형성과표(Balanced Score Card) 방법으로 미국 내 8개 도서관 컨소시엄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컨소시엄들 간의 목표와 전략에 있어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혔다.

2013년 캐나다 CRKN(Canadian Research Knowledge Network)은 회원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컨소시엄 협상 효율성과 회원기관에 대한 혜택을 비교·분석하고자 타 컨소시엄과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인상은 타 컨소시엄과의 명확한 비교가 가능한 요소였지만, 비 가격적 요소들은 비교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간 협상 시 적정 할인율 수준을 얼마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컨소시엄 간에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산 지원 상황도 모두 달라서 컨소시엄 효율성을 1:1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의 중요 요소는 비교 대상 모두 동일하게 가격이 1순위로 나타났으나 가격 이외의 요소들의 순위는 컨소시엄의 구성 목적, 회원기관의 특징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컨소시엄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회원 기관의 요구에 부응하는 컨소시엄 서비스 및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Amherst 등 5개 대학으로 구성된 Five Colleges consortium(FCL)은 컨소시엄 라이선싱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0년 미국 내 타 도서관 컨소시엄들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비교 연구는 미국 내 4개 도서관 컨소시엄(CARL(Colorado Alliance of Research Libraries), OCA(Orbis Cascade Alliance), TRLN(Triangle Research Libraries Network),

WRLC(Washington Research Library Consortium))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컨소시엄 조직, 업무 프로세스, 현황과 미래에 대한 16개의 질문 항목을 구조화된 질문지로 작성한 후 전화, 대면 면담 및 서면조사 방식을 혼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규모가 큰 컨소시엄들은 비용 분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더 많은 회원기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규모 컨소시엄들은 회원 기관들의 예산 증액, 외부 예산 지원 없이는 기존 구독 정보의 갱신 계약이 어려울 수도 있을 정도로 컨소시엄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urner 2014).

이 밖에도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한 도서관 컨소시엄 연구로는 Guzzly(2010)의 미국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비교연구, Boissy 등(2012)의 Big Deal에 관한 출판사, 정보서비스 제공자, 컨소시엄 주관기관, 대학도서관 등 컨소시엄의 각 주체별 의견을 수집한 이해관계자 분석 연구, Perry(2015)의 Lyrasis 컨소시엄 책임자 Tom Sanville 면담을 통한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국제 협력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국내의 도서관 컨소시엄 중 전자정보 컨소시엄에 관한 연구는 전자저널 수집 및 관리의 한 측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 사서들의 요구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란주, 장은비(2012)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의 전자정보 관련 연구논문 출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자저널 수집 및 관리, 컨소시엄 및 아카이빙, 라이선싱, 선정 및 구독 각 3~4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

연구방법으로는 전자저널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및 인터뷰, 연구자 설문조사, 문헌조사, 이용 통계 분석 등이었다. 전자저널 관리 및 컨소시엄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전자저널 관리의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신은자(2007)는 “2007 KESLI 컨소시엄 조건” 자료집을 기준으로 학술지 빅딜 판매 현황을 분석하여 절반 이상 컨소시엄 품목의 학술지 가격 구조가 여전히 기존 학술지 구독료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는 점과 인쇄 학술지 기반의 가격 구조에서 출판 비용 절감액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학술지 빅딜 판매 개선 방안으로 도서관이 출판사에 다양하고 탄력적인 가격 정책을 개발하고 전자출판에 따른 출판비용 절감액을 학술지 구독가격에 반영하도록 출판사를 압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도서관과 학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오픈 액세스 출판을 확산함으로써 학술지의 개방형 접근을 주장하였다.

전혜영, 박수희(2010)는 KESLI 컨소시엄 이해관계자인 참가기관, 공급사, 주관기관 실무자를 6개 집단으로 군집화 하여 표적집단면담(FGI)을 실시하여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사서업무 용이성, 양질의 전자저널 확보,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컨소시엄 효과로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컨소시엄이 가격 인상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대하고 있으나 집단 간의 기대와 요구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해관계자 요구의 해결을 위하여 컨소시엄 참가 도서관 사서들의 진취적 자세, 컨소시엄의 조

직화, 콘텐츠 제공자의 고객 지향적 태도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상준(2010)은 도서관 컨소시엄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예산 감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도서관에 대한 ICOLC의 대안 마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안으로는 OA 저널 확대, 도서관 규모별로 상호 수용 가능한 모델 마련, 출판사 중심의 계약 조건 탈피를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도서관과 사서들의 철저한 연구와 준비를 통한 협상력 강화를 제안하였다.

김상준, 김정환(2010)은 문헌연구를 통해 빅딜 계약의 대안으로 OA 기반 모델, 이용량 기반 모델, 컨소시엄 개선 모델, 출판사 주도 모델을 조사하고 기존 KESLI 컨소시엄 가격 모델의 대안으로 참가기관간의 컨소시엄 비용 재분배 모델을 제안하였다.

조재인(2012)은 한국의 KERIS와 일본 NII(국립정보학연구소)를 사례로 한국과 일본의 대학 학술정보 공유 유통 체계를 비교 연구하였다. 일본의 경우 NII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전자자원관리시스템 보급, 일본 학회 정보화 및 전자저널 출판 지원, 기관 리포지터리 및 OA 활성화 추진, 자국 내 연구 성과의 국제적 전파에 관련된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대학 도서관컨소시엄(JANUL)과 공사립대학도서관 컨소시엄(PULC)이 2011년 JUSTICE로 통합되어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음을 예로 들어 분산된 학술정보 사업 추진 체계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그 밖에 전자저널 빅딜 계약에 관한 연구로 빅딜 계약의 장단점과 대안을 탐색한 김상준과 김정환의 연구(2011), 전자저널 빅딜

계약의 효율성을 분석한 김정환과 이응봉(2013)의 연구가 있다.

전자정보 컨소시엄 운영에 관한 기술적 연구로는 컨소시엄 기반 전자저널 이용통계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정영임, 김정환의 연구(2012)와 전자학술정보 이용통계 구축을 위한 표준 플랫폼 구축에 관한 정영임 외(2014)의 연구가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국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특성과 현안 및 대응 방안, 미래 전망에 대한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들의 견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면담법을 사용하였다.

면담 항목은 도서관 컨소시엄의 현황, 정책, 현안 및 전망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각 컨소시엄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한 해외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Guzzy(2010)는 미국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을 비교 연구하였다. Thompson(2005; 2010; 2015)은 미국 법학도서관 컨소시엄 NELLCO의 책임자로 2005년부터 5년 주기로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책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도서관 컨소시엄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OCLC에서는 도서관 현황에 관한 시리즈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도서관 컨소시엄에 관한 리포트를 발간하였다(<표 3> 참조).

〈표 3〉 도서관 컨소시엄 관련 연구의 설문항목 비교

연구내용 설문항목	Guzzy(2010) 미국 대학도서관 컨소시엄 비교 연구	Thompson(2005; 2010; 2015)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비교 연구 (정례적 연구)	OCLC(2012) 미국 도서관 컨소시엄 현황 자료 (OCLC 시리즈 리포트)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컨소시엄 최초 구성연도 • 컨소시엄 대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주요 기능 • 컨소시엄 최초 구성연도 • 소재 국가 • 참가 범위 (지역, 국가 등) • 참가기관 수 및 참가기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주요 기능 • 컨소시엄 최초 구성연도 • 참가기관 수 및 참가기관 유형
조직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 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무 기술서 유무 • 설립 근거(공식, 비공식 조직) • 거버넌스 • 직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수
운영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기관 기준 • 지불 금액 산출 기준 • 회비 유무 • 지출 비용 및 방식 • 회계 대리인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조달 방식 • 연간 예산 규모 • 멤버십 종류 • 컨소시엄 참가방식(전체, 기관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조달 방식 • 참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
현안 및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장점 또는 우수한 기능 • 문제점 • 컨소시엄의 미래 전망과 목표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가장 중요한 혜택 • 10년, 또는 20년 후 전자정보 시대 컨소시엄의 역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및 미래의 주요 기능 • 문제점

2.2 면담 대상자

연구 대상 도서관 컨소시엄은 주요 선진국 중 선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컨소시엄 책임자를 면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단 일본 JUSTICE 컨소시엄은 책임자 없이 사무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대학 도서관에서 파견된 컨소시엄 담당 사서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 컨소시엄 및 면담 대상자는 미국의 Lyrasis 컨소시엄 책임자 Tom Sanville, 미국 VIVA 컨소시엄의 Katherine Perry, 영국 Jisc Collection 컨소시엄 책임자 Liam Earney, 프랑스 COUPERIN 컨소시엄 책임자 Malotaux Sandrine, 일본 JUSTICE 사무국 Azusa Omae 등 5명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국을 직접 방문하여 면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제약이 있어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책임자가 참여하는 ICOLC 총회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5개 컨소시엄 5명의 전문가에게 ICOLC 총회의 참석 여부 및 면담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2.3 자료 수집

2.3.1 면담 질문지 작성 및 검증

ICOLC 총회 일정과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별 일정상 면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면담 대상자들이 질문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답변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도서관 컨소시엄 질의 항

목을 비교하여 구성하였으며, 질의 내용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 2명의 검토를 받았다.

2.3.2 면담 질문지 송부 및 회신

연구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반 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전에 본 연구의 목적, 질문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미리 면담 내용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도 연구 참여자들에게 대해 최대한 이해한 상태에서 면담에 임하고자 가능한 서면으로 답변지를 사전에 입수하였다. 질문지는 2014년 10월 10일 연구 참여자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이중 일본 JUSTICE 컨소시엄 책임자와 미국 VIVA 컨소시엄 책임자로부터 10월 14일과 15일 각각 서면 회신을 받았다. 나머지는 회신하지 않았다.

2.3.3 면담 실시

면담은 2014년 10월 20일과 21일 포르투갈 국립도서관에서 개최된 ICOLC 정기총회 행사장에서 1:1 대면 면담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52분까지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은 수기로 기록하였으며 DSLR 카메라로 동영상으로도 촬영을 하였다. 단, 미국 VIVA 컨소시엄 책임자는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여 제외하였다. 면담 진행은 사전에 송부한 질문지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연구 참여자들의 일정이 제한적이고 가급적 면담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자 질문 순서를 조정하거나 일부 질문 항목은 생략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 종료 후 현장에서 기록한 수기 메모와 촬영한 동영상을 대조하며 연구자가 직접 필사하였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참여자 별 면담 내용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용이하게 정리하였다. 다만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새로운 관심 사항이 발생한 경우나 연구 참여자가 면담의 흐름을 주도한 경우에 일부 질문의 순서가 조정된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필사 내용을 반복하여 읽고 정리하였다.

3. 해외 주요 도서관 컨소시엄의 현황 비교·분석

3.1 컨소시엄별 특성

미국 VIVA 컨소시엄 전 책임자 Katherine Perry의 2012년 도서관 컨소시엄에 대한 비교 연구 자료에는 “도서관 컨소시엄은 눈 결정과 같아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나 각각은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있다. 도서관 컨소시엄들은 구성 목적, 조직, 자원, 활동에 있어 각각의 특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해외의 도서관 컨소시엄의 현황 및 특성은 <표 4>와 같다.

미국에는 주 단위로 도서관 컨소시엄이 존재한다. 본 연구대상 중 VIVA 컨소시엄은 미국 버지니아 주의 대학, 연구소 등 고등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컨소시엄이다. VIVA 컨소시엄의 주요 기능은 전자정보 공동구매와 도서관간의 소장정보 공동 활용이다. 운영 예산의 절반 정도는 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표 4〉 연구대상 도서관 컨소시엄 현황

컨소시엄명	소재국	운영목적	조직형태	운영비 조달	기능	참가 기관수	직원 수	라이선싱 예산규모 (연간)	라이선싱 패키지수
Lyrasis	미국	미국 전역의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의 정보 입수, 정보 관리, 공동 활용을 지원	비영리재단	참가기관 회비 및 수수료	장서공유, 전자정보 라이선싱, 상호대차, 보존, 교육훈련	1,200	65	68M USD*	413
VIVA	미국	버지니아 주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 및 비영리 학술도서관의 비용 효과적인 정보 확대 지원	주정부 지원 도서관 컨소시엄	주정부 예산 및 참가기관 회비	전자정보라이선싱, 상호대차, 교육훈련	72	3.5	16M USD	50+
Jisc Collection	영국	영국에서의 학술·교육용 전자정보 조달을 지원	비영리법인	정부 예산 및 참가기관 회비	장서공유, 전자정보라이선싱, 전자정보 호스팅	500	20	37M GBP	385
COUPERIN	프랑스	대학,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전자정보 라이선싱	협회	정부 예산 및 참가기관 회비	전자정보라이선싱	240	3	미확인	203
JUSTICE	일본	일본 대학의 전자정보 라이선싱 조건 협상	협회	참가기관 회비	전자정보라이선싱, 교육훈련	525	3	28B JPY**	95

* Lyrasis 회계보고서 매출원가 항목을 산정한 금액임
 ** 전자 및 인쇄자원 구독비용 총액임

컨소시엄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여러 컨소시엄이 통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국의 Lyrasis 컨소시엄은 미국 동남부 도서관 협력체 SOLINET과 필라델피아 등 중앙 애틀랜타 도서관 협력체 PALINET이 합병된 거대 도서관 통합 컨소시엄으로 참가기관이 1,200여개에 달한다. 2009년 Lyrasis로 통합된 이후 SOLINET, PALINET 등 컨소시엄 관계자 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컨소시엄 통합의 목적으로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도서관 협력 비전의 설정이 필요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였다'라고 컨소시엄 통합 이유를 설명하였다. 컨소시엄 통합 효과에 대해서 전 NELINET 컨소시엄 위원장 W. Lee Hisle는 비용 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전 PALINET 컨소시엄 위원장 Joe Licia는 국가적인 도서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혜택으로 제시하였다(Anderson

2010). Lyrasis는 운영 예산을 정부의 지원 없이 참가기관의 회비와 거래 수수료(transaction fee)로 조달하기 때문에 도서관 컨소시엄의 운영에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Lyrasis에는 미국 내 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 1,200여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 생산, 접근, 관리 협력 등 다양한 정보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Jisc는 디지털 정보자원과 정보기술로 고등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Jisc는 Customer Engagement, Futures, Technology, Digital resources 등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Jisc Collection 컨소시엄 책임자 Liam Earney에 따르면, 과거 Jisc는 100여 개의 분산된 서비스 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점차 중앙 집중화하고 있다. Jisc에서는 Digital resources 사업 부문 아래의 Jisc Collections에서 전자정보 컨소시엄을 운

영하고 있다. Jisc Collections에서는 라이선싱 협상(NESLi2), 컨소시엄 콘텐츠 및 라이선스 정보 DB(Knowledge Base+), 디스커버리 서비스, 전자저널 이용통계 포털(Journal Usage Statistics Portal, JUSP), 디지털화 및 보존 서비스를 운영한다. Jisc Collection의 Liam Earney는 Jisc Collection은 학술정보의 총체적인 생애주기(whole lifecycle) 관점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하였다. Jisc는 운영 예산을 고등 교육(Higher Education) 예산과 회원 기관 회비(Institutional Funding)로 조달하고 있다.

프랑스의 COUPERIN 컨소시엄 책임자는 COUPERIN은 전자정보 공동구매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이며 참가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특징으로 강조하였다. COUPERIN에는 대학, 병원, 연구소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과 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운영 예산은 고등교육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로부터 연간 약 60,000유로, 참가기관으로부터 회비 약 40,000유로 정도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일본 JUSTICE 컨소시엄은 2011년 국립대학 도서관협회 컨소시엄(JANUL)과 사립 및 공립 대학 도서관 컨소시엄(PULC)이 통합된 대학 도서관 컨소시엄이다. JUSTICE는 NII의 지원하에 NII에 사무국을 두고 대학도서관에서 파견된 3명의 사서들로 운영되고 있다. JUSTICE 컨소시엄 참가 대학들은 의학 도서관협회(JMLA) 컨소시엄과 약학 도서관협회(JPLA) 컨소시엄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컨소시엄 참가는 각 대학의 결정사항으로 컨소시엄간의 참가와 운영이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3.2 컨소시엄별 라이선싱 조건협상

미국 VIVA 컨소시엄의 Katherine Perry는 전자정보 라이선싱 조건 검토의 주요 항목으로 동시 접속자수, 원격접속, 방문이용자, 상호대차 권한, 전자정보 접근을 위한 지원(예를 들면 MARC 데이터 제공) 등을 검토한다고 하였다. 최초 제안가격, 향후 연간 인상을, 콘텐츠 추가 등이 협상 쟁점 사항이 된다고 하여 타 컨소시엄과 큰 차이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실제 협상 시에는 예를 들어, 동시 접속자수 조건 요구 등 출판사가 도저히 수용하지 않는 조건도 있다고 하였다. VIVA는 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모든 컨소시엄 제안 절차와 내용은 주 정부 법을 준수하며 협상에도 VIVA 중앙 사무소는 물론 정부 조달 직원들과 협력하여 수행한다고 하였다. 제안 품목 평가 기준으로는 건당 이용료, 저널당 이용료, 이용 저널 비율, 컨소시엄 전체의 이용량 분포, 공급사 효율성, 플랫폼 등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Jisc의 NESLi 컨소시엄은 옵트인(opt-in) 방식의 컨소시엄이다. 옵트인 방식이란 컨소시엄에서 전자정보 라이선싱 조건을 먼저 확정하고 참가여부를 회원기관들이 조건을 판단하여 기관별로 컨소시엄 참가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을 말한다. Jisc의 Liam Earney는 수십 개 컨소시엄 품목의 조건 검토 및 협상을 회원 기관들이 수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Jisc의 전담 인력이 수행하며 투입 인력은 Jisc Collection CEO를 포함하여 5명 정도라고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NESLi 컨소시엄에 참가한 대형 출판사는 18개, 중소형 출판사는 40개로, 대형 출판사는 조건 검토와 협상에 집중하고 중소형

출판사는 SMP 컨소시엄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보다 간단한 절차로 협상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컨소시엄 비용은 Jisc 예산으로 지불하거나 각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지불하며, 하나의 인보이스로 지불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효과적인 협상 전략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Jisc의 NESLi 컨소시엄은 품목별로 적용할 모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협상 전략을 문서화하고 품목별로 협상 목표와 세부계획을 달리하여 준비하는 등 협상 체계를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협상 전략 문서는 매년 업데이트 한다. 첫 협상 회의에서 제안 조건을 평가하며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Jisc, 도서관 대표, 출판사 등의 3자 회의를 주선하여 도서관 사서 또는 도서관장을 참여시키는 회의를 하고 이를 통해 출판사는 수요자의 정책, 가격, 접근 방법 등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된다.

Jisc에서는 컨소시엄 활동을 자문받기 위해 2010년부터 Electronic Resources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멤버들은 15명 정도로 자신이 속한 협회(RLUK²⁾나 SCONUL³⁾의 관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의견 조율이 쉽지는 않는데 Jisc가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전체 도서관 그룹들을 대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COUPERIN은 회원기관들의, 회원기관들을 위한, 회원기관에 의한 도서관 컨소시엄을 표방한다. COUPERIN은 컨소시엄 대상 품목 선정, 협상 진행 여부 등 모든 과정에서 회원기

관의 의사를 묻고 진행한다. 단, 협상 품목별로 관심을 가진 회원 기관들만을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중단 시에는 의사를 묻는다고 한다. 협상에는 회원기관으로부터 선발된 약 70여명의 사서가 자발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 조건 협상에 있어 절대적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회원기관별로 예산 상황이나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협상 기준 마련 사례로 COUPERIN에서는 2011년경 협상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여 목표치를 설정해 놓았다. 전년도 10월에서 12월경에 회원기관들의 정보자원 구독 예산 계획을 조사하여 협상 목표치를 갱신하고 협상 가이드라인을 각 협상 담당자들이 분담하여 작성하고 하나로 통합한다. 협상은 1월부터 시작되는데 출판사에 이 가이드라인을 보낸다.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을 시작한다.

JUSTICE 컨소시엄은 사무국에서 컨소시엄 조건 제안서를 검토하고 협상을 준비한다. 운영 위원회와 워킹그룹이 제안서를 검토하고 대면 회의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송부한다. 사무국의 Azusa Omae는 조건 검토 범위를 가격, 이용조건, 외부 서비스/표준(Shibboleth, COUNTER, CLOCKSS, Portico, KBART 등) 준수 여부 등으로 한다고 하였으며, 국제 표준과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yrasis 컨소시엄은 재원 독립적인 특성 때문인지 컨소시엄 협상과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Tom Sanville은 출판사가 제시한 라이선스 조건을 멤버들에게 직접 공개

2) RLUK: 영국 연구도서관 협회(Research Libraries in UK)

3) SCONUL: 영국 대학도서관 협회(Society of College, National and University Libraries)

하지 않고, 대신 모델 라이선스로 모든 조건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회원기관들은 가격 조건만 확인하면 되도록 한다는 정책이다. Lyrisis에 서는 모델 라이선스는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급적 모든 출판사의 모든 전자정보 패키지가 하나의 모델 라이선스를 준수한다고 한다. 전자저널, 웹DB, eBook 등 전자정보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한다. 협상 인력은 Lyrisis 내부 직원으로 3명 정도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회원기관 수나 품목 수에 비해 적은 인력으로 협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om Sanville은 출판사와의 협상에는 예산 규모나 예산 조달 방법, 구매자들 간의 관계나 입장 등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해서 컨소시엄 자체가 하나의 큰 블랙박스인 인식되도록 해야 강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조언을 하였다. 또한 협상 채널을 단일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 내 단일 컨소시엄 구성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미국 내에서도 모든 컨소시엄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주별로 정치, 경제 체제가 달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Lyrisis의 경우 운영 예산이 독립적이라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캐나다까지를 아우르는 컨소시엄 조건을 도출한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이는 주 단위 컨소시엄 체제로는 불가능한 시도였으며 Lyrisis는 주 단위 컨소시엄이 수행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내 타 컨소시엄들과도 경쟁보다는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큰 틀에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3.3 컨소시엄별 성과측정

VIVA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운영 초기부터 회원기관들의 이용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미국 내에서도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VIVA에서는 이용통계를 컨소시엄 효율성 평가에서 핵심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자원에 대한 회원기관의 의견을 컨소시엄 효율성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Katherine Perry는 2012년에 컨소시엄 효율성을 경영진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Balanced Score Card 방법으로 미국 내 8개 도서관 컨소시엄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이 방법이 지속적인 성과 측정 체계로 자리 잡히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Jisc는 NESLi 컨소시엄을 통해 도서관 커뮤니티 전체에 대한 전자정보 도입 과정을 지원한다. Liam Earney는 현재까지는 매우 포괄적인 수준에서 컨소시엄 총 정가 대비 컨소시엄 가격 차이로 성과를 제시해왔으나 앞으로는 보다 세부적으로 각 기관 단위 수준에서 컨소시엄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컨소시엄 성과 측정 지표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해 수십 개의 컨소시엄 품목에 대한 조건 검토 및 협상을 개별 도서관이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소요 시간 등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과 컨소시엄 취소 시의 상황을 정량화하여 예측하는 것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COUPERIN 컨소시엄 책임자는 부임 직후 컨소시엄 조건 협상 성과 평가를 시도하였다. 컨소시엄 품목별로 협상 단계별로 제안 가격을

협상 회차별로 기록함으로써 협상 성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부는 물론 외부의 타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시도하였는데 국가 단위 컨소시엄으로 영국 Jisc Collection의 NESLi 컨소시엄과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영국을 모델로 한 것은 독일의 경우 지역 단위 컨소시엄이라 규모가 달라서 비교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COUPERIN에는 컨소시엄 평가 모델이 없으나 향후 정부나 회원기관이 컨소시엄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되어 평가 모델 개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 라이선스 혜택에 대한 평가, 기관별 비용 분담 모델의 적정성 검증, 전 회기와와의 계약금액 비교 방법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일본 JUSTICE 컨소시엄에는 성과 평가 모델이나 절차는 없다. JUSTICE는 회원기관들의 이용통계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총 지출 비용과 이용통계에 따른 성과 평가는 불가능하다.

Lyrasis 컨소시엄은 정부 지원이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컨소시엄 성과를 보고할 대상이 없고 컨소시엄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다. 2014년 당시 Lyrasis 컨소시엄 책임자 Tom Sanville은 OhioLink에서도 컨소시엄 운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시에는 얼마나 낮은 단가로 정보를 공급하는지를 기준으로 컨소시엄 효율성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3.4 컨소시엄별 현안사항

미국 VIVA 컨소시엄에서는 주 정부의 컨소

시엄 지원 예산 삭감으로 컨소시엄 품목을 구독 취소하게 되는 상황을 현안으로 지목하였다. 2014년의 경우 급작스런 예산 삭감 결정으로 인하여 구독 취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참가기관들의 구독 취소 대상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거쳐 운영위원들의 합의하에 구독 취소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구독 취소 가이드라인은 회원기관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활용도, 가격, 공급사 지원수준 등을 고려하고 색인보다는 원문정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립하였다고 한다.

프랑스 COUPERIN 컨소시엄 책임자는 가격인상을 가장 큰 현안으로 지적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저널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모든 저널 구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단행본 구매 및 도서관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컨소시엄 구성 이전 1990년대에는 전자정보 인상률이 10% 수준이었으나 컨소시엄 이후 이용 가능한 정보량은 대폭 증가하였고 인상률은 제한되고 예측 가능하여 컨소시엄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COUPERIN 컨소시엄의 최근 인상률은 2~3% 수준이라고 하였다.

일본 JUSTICE 담당자는 환율 변동을 중요한 현안으로 지목했다. 2014년 엔화 가치가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하락하고 소비세가 5%에서 10%로 인상된 사례를 들었다. 당시 JUSTICE는 기존의 Big Deal 가격 모델로는 환율 변동에 대비가 어려워짐에 따라 회원기관들이 전자정보 구독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가격 모델을 개발하고자 출판사와 협상하였다고 하나 구체적 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미국 Lyrasis의 경우는 공급사는 컨소시엄

을 이탈하여 개별 판매로 전환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정보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에서 공급사가 반드시 컨소시엄 참여를 유지시키는 것이 과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컨소시엄간의 차이로 인해 주요 현안사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책임자들은 전 세계 도서관 컨소시엄 관점에서 현안사항으로 OA를 제시하였다.

Jisc에서는 전자정보 구독 방식과 OA 방식의 하이브리드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정보자원 예산은 동결되고 전자정보 인상률은 3~4% 수준이 지속되고 있어 OA 전환을 위한 기금 확보를 통해 전자정보 입수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COUPERIN 컨소시엄 책임자는 OA를 활성화하고 싶지만 출판사와 라이선싱 가격 협상을 수행하면서 OA 활성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OA는 저작권의 문제도 있어 연구자들이 관여해야 가능한 사안으로 도서관 컨소시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였다. 미국 Lyrisis 책임자 Tom Sanville도 학계와 연구계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변화로 인해 OA가 전자정보 구독료 인상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도서관 중심의 OA 컨소시엄에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SCOAP3 컨소시엄은 너무 적은 저널을 OA 전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재원을 도서관 정보구입 예산으로 하고 있어 대중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JUSTICE 담당자는 현재로서는 대학 차원에서 OA APC(Article Processing Charge)

규모도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OA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5 전문가별 컨소시엄 가치 인식

대부분의 컨소시엄 책임자들은 도서관 컨소시엄의 가치를 협상력으로 제시하였다.

Lyrisis 책임자는 궁극적으로 낮은 단가로 정보를 공급함으로써 도서관이 보다 많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컨소시엄의 성공 측정 지표도 비용 효율성으로 제시해왔다고 한다. 같은 관점에서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종(title)단위로 저널을 구독하는 방식은 좋은 거래가 아니며 컨소시엄은 블랙박스 전략을 써서 협상력을 높여 도서관의 지속가능성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으로 컨소시엄 협상력은 증상만을 대처할 뿐 현재의 교육 및 연구 체계가 세계적으로 더 많은 논문 생산을 요구함에 따르는 정보량 증가와 이로 인한 근본적인 정보가격 인상을 도서관 컨소시엄의 협상력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다는 한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Jisc 책임자도 중앙 협상에 따른 협상력 증대, 협상가들을 활용한 협상 효율성을 컨소시엄의 가치로 제시하였다. 컨소시엄 차원에서는 개별 기관이 알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통계, 구매 패턴 등의 큰 흐름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출판사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변화시킬 만한 역량이 집결된다고 하였다. 또한 회원기관 그룹핑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하고 가능한 경우 정부 기금을

〈표 5〉 연구대상 도서관 컨소시엄에 대한 전문가 면담 내용 요약

	미국 Lyrasis	미국 VIVA	영국 Jisc Collection	프랑스 COUPERIN	일본 JUSTICE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여러 주의 도서관 컨소시엄 통합 회원기관 참가비만으로 운영(정부 예산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 버지니아 주 모든 도서관을 대상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 내 여러 지역, 여러 관종의 도서관 협의회와 협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도서관이라면 관종 제한 없이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공립대학도서관 통합 컨소시엄 국립정보학연구소(NII)의 지원을 받음
협상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협상 Lyrasis 인력 약 3명이 협상하고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안요청으로부터 계약까지 주 정부 조달 법에 따름 VIVA 사무국과 주 정부 계약 공무원 약이 함께 수행 주 정부 예산 내에서 구독대상 순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 라이선스, 협상 가이드라인 기준 대형/중소형 출판사 구분하여 협상 Jisc 내부 약 5명이 전담, 평가회 등 중요사안에는 도서관장 참여 조건평가와 대면협상 2단계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 가이드라인 기준 회원기관 사서 직접 협상 (70여명 수준) 회원기관 예산자료를 참고로 협상담당자들이 목표치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국에서 제안서 검토하고 협상 주선 회원기관으로부터 운영위원회와 워킹그룹 구성하여 협상 역할 분담
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보 구독비용 안정화를 위한 공급사의 컨소시엄 참여 유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 정부 예산 삭감시의 구독취소 기준 수립 및 회원기관 협의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회원도서관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도서관 협의회 간 의견 조율 도서관 예산 감소에 따른 OA모델 개발 교수와 학습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정보 가격 인상률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가격 모델 개발 환율 변동 대응방안 마련
컨소시엄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낮은 단가로 정보 공급하는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형 협상을 통해 협상 기술 및 효율성 증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상을 통한 적정 가격 도출하는 것. 비 컨소시엄 품목은 출판사와 최적 가격 도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술연구정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회원도서관에 제공하는 것

활용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컨소시엄의 가치 있는 활동으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널 기간호(Backfile)의 무상 서비스를 들었다. 기간호의 구매 가치로 전자저널의 편리함과 안정적 보존을 제시하였다. 기간호에 수록된 논문도 유용하다는 연구결과와 지속적인 이용량 발생 사례를 제시하고 도서관 입장에서는 인쇄저널 보관 공간 절약과

보존관리 비용 절감 관점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일본 JUSTICE 담당자도 도서관 컨소시엄은 학술연구정보, 특히 전자저널과 같이 학술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지속해서 제공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회원기관간의 정보 공동 활용, 사서들 간의 정보 교류 및 사서 양성에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선진국의 도서관 컨소시엄 책임자를 면담방법으로 조사하고 면담 내용을 주요 항목으로 구분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해외의 도서관 컨소시엄들은 구성 목적, 조직, 재원, 활동에 있어 각각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컨소시엄간의 우수성이나 효율성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려우며 컨소시엄간의 정보교환과 협력활동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출판 시대에 도서관 컨소시엄의 주요 기능과 역할은 전자정보 라이선싱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들은 도서관이 정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정보 라이선싱 가격 협상력 발휘를 가장 우선되는 컨소시엄의 가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자정보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OA를 지목하였다. 그러나 전문가별로는 도서관 컨소시엄 중심의 OA 추진 실현가능성과 추진방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 운영 경험이 많은 선진국에서도 컨소시엄 성과와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 마련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소 의외였다. 또한 컨소시엄간의 상대적인 비교 또한 컨소시엄별 목적과 운영 특성 등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간의 비교와 성과 평가

는 주로 경영진의 요구로 인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게 수행되는 평가 활동은 단발적이며 그 방법도 상황에 맞게 다를 수 있어 지속적인 평가 체제로 정착되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의 운영 경험과 컨소시엄에 대한 견해를 면담을 통해 직접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내 연구와는 차별된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 도서관 컨소시엄들의 현안사항과 대응 방안을 비교·분석한 연구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는 선진국 중 4개 국가의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 5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컨소시엄별로 공통점과 차별점을 비교·분석하는데 큰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연구 대상자의 입장과 경험에 따라 컨소시엄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 대상자 수에 있어서도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면담 진행에 있어서 외국인 연구대상자에게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답변을 듣고자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고 사전 답변을 요청하였음에도 답변 회신율이 낮았고 행사 참가 중에 면담을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라 연구 참여자들과 짧은 면담 시간 밖에 허용되지 않아 의사 교환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2014년 10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본 논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컨소시엄 운영 현안 등 일부 면담 항목에는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 자료의 시의성에도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와 국내 도서관 컨소시엄과의 비교·분석 내용은 다루지 못하였다. 컨소시엄 간의 절대적 비교는 어렵고 비교 자체를 의미로 들 수는 없다는 선행 연구결과도 있다. 그

립에도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내와 해외의 도서관 컨소시엄간의 차이와 공통점, 컨소시엄 효율성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컨소시엄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컨소시엄을 통한 도서관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상준. 2010.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정보관리연구』, 41(4): 93-118.
- [2] 김상준, 김정환. 2011. 전자저널 빅딜 계약의 연구 동향과 대안 탐색. 『정보관리연구』, 42(1): 85-111.
- [3] 김성진, 정은경, 한민혜. 2008. 전자저널 컨소시엄을 둘러싼 학술커뮤니케이션의 쟁점과 대응동향. 『정보관리연구』, 39(1): 27-52.
- [4] 김정환, 이응봉. 2009. KESLI 컨소시엄의 주요이슈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40(3): 99-123.
- [5] 김정환, 이응봉. 2013. 전자저널 빅딜계약의 효율성 분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4): 182-210.
- [6] 신은자. 2007. 학술지 빅딜판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373-389.
- [7] 이란주, 장은비. 2012. 전자저널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2002-2011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1): 27-46.
- [8] 이소연. 2008.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환경과 미래형 전자저널 컨소시엄 운영모형: KESLI를 중심으로. 『정보관리연구』, 39(1): 1-25.
- [9] 전혜영, 박수희. 2008. 전자저널 컨소시엄의 이해관계자 요구 분석 연구. 『정보관리연구』, 39(1): 53-82.
- [10] 정영임, 김정환. 2012. 컨소시엄 기반 전자저널 이용통계 수집 및 분석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29(2): 7-25.
- [11] 정영임 외. 2014. 전자학술정보 이용통계 유통을 위한표준 플랫폼 구축.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9(4): 61-72.
- [12] 조재인. 2015. PDA(Patron-Driven Acquisitions) 방식 전자책 수서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4): 105-121.
- [13] 황옥경. 2004. 전자저널 라이선스 계약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199-228.
- [14] Anderson, K. 2010. "LYRASIS: A Collaborative Success Story." *Collaborative Librarianship*, 2(2): 105-108.

- [15] Baathuli, N. R. and Darko-Ampem, K. 2002. "Developments in Academic Library Consortia from the 1960s through to 2000: A Review of the Literature." *Library Management*, 23(4/5): 203-212.
- [16] Boissy, R. W. et al. 2012. "Is the Big Deal Dying?" *Serials Review*, 38(1): 36-45.
- [17] Consortia Survey Request. 2010. *Consortia Survey Request*. [online] [cited 2016. 4. 14.] <<https://collaborativelibrarianship.wordpress.com/2010/10/15/consortia-survey-request/>>
- [18] CRKN. 2014. *CRKN External Review Report to the Board of Directors, 1-3*. [online] [cited 2016. 4. 12.] <http://crkn.ca/sites/crkn.ca/files/site/crkn_external_review_executive_summary_-_2014-03-19.pdf>
- [19] Guzzy, J. E. 2010. *U.S. Academic Library Consortia: A Review*. [online] [cited 2016. 7. 19.] <http://scholarspace.jccc.edu/sabbatical_projects/2>
- [20] NELLCO. 2010. *Consortium Survey 2010*. [online] [cited 2016. 7. 19.] <<https://www.surveymonkey.com/results/SM-7KTPVQ5L/data-trends/>>
- [21] OCLC. 2012. *A Snapshot of Priorities & Perspectives U.S. Library Consortia*. [online] [cited 2016. 7. 19.] <<https://oclc.org/content/dam/oclc/reports/us-consortia/214986-member-communication-survey-report-consortia-review.pdf>>
- [22] Perry, K. A. 2009. "Where Are Library Consortia Going? Results of a 2009 Survey." *Serials*, 22(2): 122-130.
- [23] Perry, K. and Sanville, T. 2015. "Tom Sanville in Conversation." *Collaborative Librarianship*, 7(1): 30-37.
- [24] Perry, K. and Self, J. 2012. *The ICOLC Balanced Scorecard Pilot: The Value of Collaborative Parallel Play*. [online] [cited 2016. 7. 11.] <http://libraryassessment.org/bm~doc/Perry_Kathy_2012.pdf>
- [25] Turner, C. N. 2014. "E-Resource Acquisitions in Academic Library Consortia."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58(1): 33-48.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im, Sang-Jun. 2010. "Challenges and Solutions of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1(4): 93-118.

- [2] Kim, Sang-Jun and Kim, Jeong-Hwan. 2011. "Seeking Alternative Models and Research Trends for Big Deals in the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2(1): 85-111.
- [3] Kim, Sung-Jin, Jung, Eun-Kyung and Han, Min-Hae. 2008. "Challenges and Recent Movements in Scholarly Communication Concerning Electronic Journal Licensing Consortia."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27-52.
- [4] Kim, Jeong-Hwan and Lee, Eung-Bong. 2009. "A Study on Main Issue Analysis of the KESLI Consortium."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40(3): 99-123.
- [5] Kim, Jeong-Hwan and Lee, Eung-Bong. 2013. "A Study for the Efficiency Analysis on Big Deals of Electronic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4): 187-210.
- [6] Shin, Eun-Ja. 2007. "Analysis and Proposals Concerning Big Deals of Scholarly Journal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1(1): 373-389.
- [7] Lee, Lan-Ju and Jang, Un-Bie. 2012. "A Study on the Literature Review of E-Journal: 2002-2011."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1): 27-46.
- [8] Lee, So-Yeon. 2008. "A Business Model for Electronic Journal Licensing Consortia in an Emerging Scholarly Communication Environment: The KESLI Case."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1-25.
- [9] Jeon, Hae-Yeong and Park, Soo-Hee. 2008. "A Study on Electronic Journal Consortium Stakeholder Needs Analysis."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39(1): 53-82.
- [10] Jung, Youngim and Kim, Jeonghwan. 2012. "Improving Efficiency of Usage Statistics Collection and Analysis in E-Journal Consort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2): 7-25.
- [11] Jung, Youngim et al. 2014. "Implementation of Standard Platform for Distributing Usage Statistics of Digital Scholarly Information."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19(4): 61-72.
- [12] Cho, Jane. 2015. "Study on eBook Acquisition Model based on Patron-Driven Acquisi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4): 105-121.
- [13] Hwang, Ok-Gyung. 2004. "A Study on the Model License for Electronic Jour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8(1): 199-228.

[부록] 해외 도서관 컨소시엄 전문가 대상 사전 질문지

**Questionnaire on
Library Consortia Uniqueness and Similarity around the World**

[Part 1] Status of your consortium

Please describe about your consortium

1. Excellence or specialties of your consortium and the reasons
Caused by objectives, target members, organizational or environmental situation, compared to consortia in your country or around the world.
2. Consortium Policy
 - 1) Licensing negotiation policy : process, criteria, persons, alternatives if it fails
 - 2) Performance evaluation : evaluation model, process, used data
3. Recent issues

**[Part 2] Consortium expert's opinion on
global scholarly publication environment and the library consortia**

1. Experts's opinion
 - 1) Value of library consortia
 - 2) Current issues
 - Increasing content price and negotiation process
 - Leadership to member libraries
 - Performance evaluation and promotion to stakeholders
 - 3) Vision: Future of library consortia
2. Specific topic on each interviewee's consortium

Nation	Consortium	Topic
USA	LYRASIS	• Library consortia global cooperation possibility to get buying power (ex. OA movement, possibility of share licensing data)
USA	VIVA	• Library consortia BSC experience
UK	Jisc	• NESLi governance • Differences between NESLi and NESLi2 • Negotiation Agency
France	COUPERIN	• Efficiency and effect of national backfile licensing
Japan	NII	• Current status after alliance between JANUL and PULC

* 상기 질문은 면담자 개인별 질문지로 송부함

[Additional information inquiry]

1. Name of consortium :
2. Objectives
3. Consortium scale
 - 1) Number of member libraries ()
 - 2) Number of joint licensing items ()
4. Consortium Functions *Please check all that your consortium provides.*
 - 1) Electronic Information Licensing : Joint licensing ()
 - 2) Electronic Information Licensing : National licensing ()
 - 3) Union Catalog ()
 - 4) ILL/DDS ()
 - 5) Consortial System Management (Retrieval, Single Sign On, etc...) ()
 - 6) Digitization ()
 - 7) Digital Archiving ()
 - 8) Hosting service (Linking Solution, Discovery Solution, ...) ()
 - 9) Open Repository ()
 - 10) Open Access (ex: SCOAP3) ()
 - 11) Library Marketing Support / Librarian Training ()
 - 12) Usage Statistics Harvesting and Consolidation ()
 - 13) Consortial Performance Analyzing ()
 - 14) Etc (*Please describe details* _____) ()
5. Governance & Organization
 - 1) Managing body : _____ (ex: Library association, Government...)
 - 2) Annual budget : Around _____ [Currency]
 - 3) Number of staff : Regular (), Temporary (), Volunteer ()
fin.

